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해 여름은 한 달이 넘도록 ‘폭염특보’가 이어질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과수와 채소까지 타들어가고 급변하는 날씨에 비바람까지, 온 국민의 마음을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노심초사의 마음들이었지만 추수(秋收)의 절기답게 마음까지 나누는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얀마와 이태리, 두 나라에서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세계문화유산인 바간(Bagan)에 큰 피해가 있다는 소식이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고통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일으켜 자비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간직해온 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이사(理事)를 겸비하신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의 삶에 대한 철학, 후학들에 대한 간곡한 당부가 담긴『어떻게 살 것인가』와 지난해까지 검찰에 재직했던 김진태님이 틈틈이 옛 글을 찾아 읽고 소회를 덧붙인 『흘반난飢飯難 - 밥 먹기 어렵다』를 보내드립니다.

일반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계신 설정스님의 여러 당부 중에서도 “지도자는 겸손하고 너그려워야 하며,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이다”는 조언과 “수행자는 먹을 것 · 입을 것 · 잠, 이렇게 세 가지가 부족해야 하며, 공부와 노동이 함께해야 힘 있는 공부가 된다”는 말씀은 예리한 경책(警策)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께서도 이 책을 접하며 비슷한 기분에 놓이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생을 차가운 법조문을 대하면서도 진리[法]를 묻고 그 공부를 멈추지 않은 김진태님은 ‘참 공부인’입니다. 이 책은 틈틈이 써 모았던 글들을 ‘퇴임식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겸손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직자들이 저자처럼 공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옛 어른들의 시문을 읽고 그것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과 자연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밝은 희망을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을 모아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기2560년 추석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